01 NEWS

Feature | 현대중공업지주,
의료 빅데이터 신사업 진출
Highlight | 그룹사 이달의 소식

02 INSIDE

Cover Story | 사회적 자본 '신뢰 네트워킹'으로 생산성 높인다
The View | 조선산업 팩트체크 : 해양플랜트 발주
Technology | 스마트 선박으로 안전운항부터 원격 유지보수까지!
People |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그리는 마도로스
현대글로벌서비스 손병근 대리

03 STORY

Knowledge | 먼저 떠오르는대로 써보세요
Trend | 훌쩍 다가온 가을의 길목, 주홍빛 가을이 머무는 풍경
Legal | 안전한 외국자산투자의 시작, 이것만은 꼭!
Health | 말할 수 없는 비밀, 치질
Culture | 신선이 되는 지름길, 버섯 요리
Story + | 사우의 글 - 내 인생의 맥주
유용한 정보 - IPA, 둔켈, 바이젠… 취향 저격 맥주를 찾아서
잡학사전 - 고대인들도 사랑한 곡물 음료, 맥주
Studio H | 지친 걸음을 달래주는 나의 행복, 나의 사랑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MONTHLY WEBZINE

MAGAZINE H NO.006

CONTENTS

NEWS

03 Feature
현대중공업지주, 의료 빅데이터 신사업 진출

04 Highlight
그룹사 이달의 소식

INSIDE

08 Cover Story
사회적 자본 '신뢰 네트워킹'으로 생산성 높인다

10 The View
조선산업 팩트체크 : 해양플랜트 발주

12 Technology
스마트 선박으로 안전운항부터 원격 유지보수까지!

14 People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그리는 마도로스
현대글로벌서비스 손병근 대리

STORY

17 Knowledge
먼저 떠오르는대로 써보세요

19 Trend
훌쩍 다가온 가을의 길목, 주홍빛 가을이 머무는 풍경

23 Legal
안전한 외국자산투자의 시작, 이것만은 꼭!

25 Health
말할 수 없는 비밀, 치질

26 Culture
신선이 되는 지름길, 버섯 요리

27 Story +

사우의 글 | 내 인생의 맥주
유용한 정보 | IPA, 둔켈, 바이젠… 취향 저격 맥주를 찾아서
잡학사전 | 고대인들도 사랑한 곡물 음료, 맥주

30 Studio H
지친 걸음을 달래주는 나의 행복, 나의 사랑

Feature | Highlight

01 NEWS

현대중공업지주, 의료 빅데이터 신사업 진출

카카오-서울아산병원과 국내 최초 의료 데이터 전문 회사 설립
병원 EMR, 임상데이터 등 비식별 의료정보 담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국내 스마트 의료시장 성장 이끌어 갈 것

현대중공업지주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서울아산병원과 손잡고 의료 빅데이터 신사업에 진출한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8월 29일(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경영지원실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이 총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하는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칭)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지는 의료 데이터 전문 회사로, 국내 의료 빅데이터 시장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한국형 '토종' 의료 빅데이터 전문센터가 설립됨으로써 환자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진단과 처방, 예방법을 통해 의료의 질을 더 높이고, 의료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시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국내 의료산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의료 빅데이터 시장 2023년엔 5,600억 원 규모로 성장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 빅데이터 시장은 2023년 5,600억 원 규모로 2013년 대비 약 6.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사업모델 다각화 및 전략 등을 담당할 계획이며, 서울아산병원은 비식별화 및 익명화된 의료 정보와 교수들이 참여한 의학 자문 정보 등을 제공,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다양한 플랫폼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플랫폼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최대인 총 2,704 병상, 1일 평균 외래환자 11,862명, 연간 63,791여 건의 고난도 수술을 시행하는 서울아산병원의 병원 운영 노하우와 진료 기록, 국내 최고 전문의의 자문내용 등이 의료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 현대중공업지주는 29일(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김성준 현대중공업지주 경영지원실 부문장, 박지환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뒷줄 왼쪽 세 번째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네 번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경영지원실장, 다섯번째 김범수 카카오 의장)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 제공하는 의료 빅데이터는 병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은 물론 다양한 임상시험 정보와 예약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등이 비식별, 익명화돼 담길 예정이다. 이 정보들은 의료 환경 분석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원하는 의료 기관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경 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완성 예정

특히 2020년경 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완성되면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 또는 IT 전문 해외 유수기업들이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와 AI · IT 분석 기술을 활용,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지주 관계자는 "국내에는 활용 가능한 의료 빅데이터가 부족해ㅌ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라며 "이번 의료 빅데이터 합작회사 설립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국내 스마트 의료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 의료 정보 플랫폼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병원장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연 간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글로벌 의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세계 최초 LNG선 완전재액화 실증 성공

현대중공업이 최근 울산 본사에 위치한 LNG선 혼합냉매 완전재액화(SMR: Single Mixed Refrigerant)시스템 실증 설비에서 가스액화시험을 통해 증발가스를 100%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혼합냉매 완전재액화시스템은 현대중공업이 LGE(Liquid Gas Equipment)社와 공동 개발한 기술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이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실증 시험은 증발가스가 액화되는 영하 163도(℃)로 설비 내부를 냉각시키는 등 실제 LNG선 운전상황을 그대로 구현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실증 시험으로 세계 최고의 효율을 가진 혼합냉매 완전재액화시스템의 성능을 입증했으며, 자체 개발한 고효율 연료공급시스템(Hi-GAS) 및 추진시스템, LNG 재기화시스템(Hi-ReGAS) 등과 함께 선주사에 최적화된 LNG선 통합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대미포조선

대형 카페리선 성공적 건조

현대미포조선이 국내 최초로 한-중 항로에 투입되는 대형 카페리(Car Ferry)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9월 5일(수) 울산 본사에서 한·중 합작선사인 위동항운으로부터 지난 2016년 수주한 3만 1천 톤급 카페리선에 대한 명명식을 개최했다. 카페리선은 승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고급 여객선이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미포조선 한영석 대표, 위동항운 전기정 사장을 포함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선주사의 임원인 양리나(杨丽娜) 여사가 스폰서로 나서 이 선박을 '뉴 골든 브릿지 7(NEW GOLDEN BRIDGE Ⅶ)' 호로 명명했다. 길이 196.1m, 너비 27.0m, 높이 32.0m의 이 선박은 122개의 호텔급 객실에 최대 724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으며, 트레일러 약 140대(325TEU)도 동시에 싣고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최고급 인테리어 자재 및 디자인이 적용된 레스토랑, 커피숍, 면세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현대삼호중공업

가온누리팀, 전국 품질분임조대회 대통령상 수상

현대삼호중공업이 전국품질분임조대회에서 8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팀을 배출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가온누리팀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전국품질분임조대회에서 회사 대표로 출전,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했다. 주제는 'LNG 연료 탱크 용접공정 개선으로 작업시간 단축'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LNG 연료탱크 제작시 동종사나 부서 목표대비 과다하게 투입되는 작업시간을 줄이는 내용이다. 가온누리팀은 용접조건 최적화와 사상작업시간 감축, 자화저감장치 제작 등의 대책을 수행해 작업시간을 목표대비 110%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번 분임조활동의 결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연간 2억 7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LNG연료탱크제작은 2021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번 분임조활동의 성과는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와 충전소에 수박 배달

현대오일뱅크가 말복을 앞두고 14일 전국 2,400여 개 주유소와 충전소에 수박을 배달했다. 각 지사 영업 담당이 시원한 냉장 수박을 가지고 주유소를 찾아 폭염 속에 고생하는 운영인들을 격려했다. 서울 도곡셀프주유소 최재희 소장은 "영업 담당도 더울텐데 손수 배달까지 해줘 무척 고맙다"며 "폭염도 곧 물러갈테니 함께 힘 내자"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하절기 안전보건 강화 차원에서 공장 곳곳에 간이 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회사와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도 미숫가루, 아이스크림, 수박, 포도당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전담 간호사가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하고 비상시 응급 조치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인도에 수해복구 굴삭기 및 성금 지원

현대건설기계가 100년만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 남부지역에 구호용 건설장비를 긴급 지원한다. 현대건설기계는 인도 남부 케랄라 주(州)와 협의해 현지에 중형 굴삭기 10대를 급파하고 구호 성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9월 3일(월) 밝혔다. 이들 굴삭기는 홍수로 붕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망을 복구하는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순 시즌을 맞아 지난달 8일(현지시간)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도 남부 케랄라 주(州)에서만 현재까지 450여명이 사망하고, 100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하루 빨리 피해 복구가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구호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 전문회사 설립

현대중공업이 발전 및 산업용 보일러 전문기업인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을 설립, 사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기존 보일러설비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Hyundai Heavy Industries Power Systems)'을 설립했다.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은 현대중공업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초대 대표이사는 권오식 전무가 선임됐다.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은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순환유동층(CFBC) 보일러 독자기술을 보유,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전력공사,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석유정제부산물인 페트콕(Petcoke) 발전설비사업에 진출했으며, 이외에도 바이오매스(Biomass), 선박용 탈황설비(Scrubber) 사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320g 초미숙아 건강히 퇴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 1월 25일 체중 302g, 키 21.5cm의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기가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서 6개월 만에 태어난 사랑이는 출생 직후 소생술을 통해 겨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태어난 지 일주일째에는 몸 속 양수가 빠지면서 체중이 295g까지 떨어져 생존의 한계를 넘나들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팀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쌓아 온 미숙아 치료 경험과 노하우로 생존 확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사랑이의 생존을 위해 도전했다. 의료진과 가족의 노력으로 많은 위기상황을 극복한 사랑이는 7월 12일 3kg까지 성장해 건강하게 퇴원했다. 주치의인 정의석 교수는 "초미숙아가 단 한 차례의 수술을 받지 않고도 모든 장기가 정상이고, 뇌실 내 출혈도 없이 온전한 생존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사랑이가 건강하게 퇴원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아산나눔재단

구글캠퍼스서울과 프로그램 진행

아산나눔재단이 지난 29일 구글캠퍼스서울과 함께 스타트업커뮤니티 다양성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서울이 탈북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탈북민 창업 및 개발도상국 기업가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더 브릿지'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약 7주간 탈북민 창업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및 IT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했다. 교육 기간에는 탈북민 창업가 각각의 비즈니스 내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략과 이에 필요한 역량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창업에 필요한 '구글 지스위트(G Suite)', '클라우드', '마케팅 툴' 등을 소개하고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국내 창업지원 자금 정책 관련 강의도 이루어졌다.

울산현대축구단

언양고에서 축구 클리닉 개최

울산현대축구단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목) 언양고등학교를 방문해 축구 클리닉을 개최했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체육활동을 즐길 시간이 부족한 요즘 학생들에게 선수들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운동의 즐거움을 나누는 울산현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날 클리닉에는 한승규, 오세훈 선수가 참석해 축구 클리닉과 사인회를 실시했다. 클리닉 일일 강사로 나선 한승규는 "참여한 학생들이 잘 참여해줘서 함께 즐겼다. 울산을 응원해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가깝게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울산은 '건강한 학교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축구 클리닉과 진로 강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갑다 축구야', 가족과 함께 하는 '호랑이 가족 운동회' 등 다양한 풀뿌리 축구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밀착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Cover Story | People |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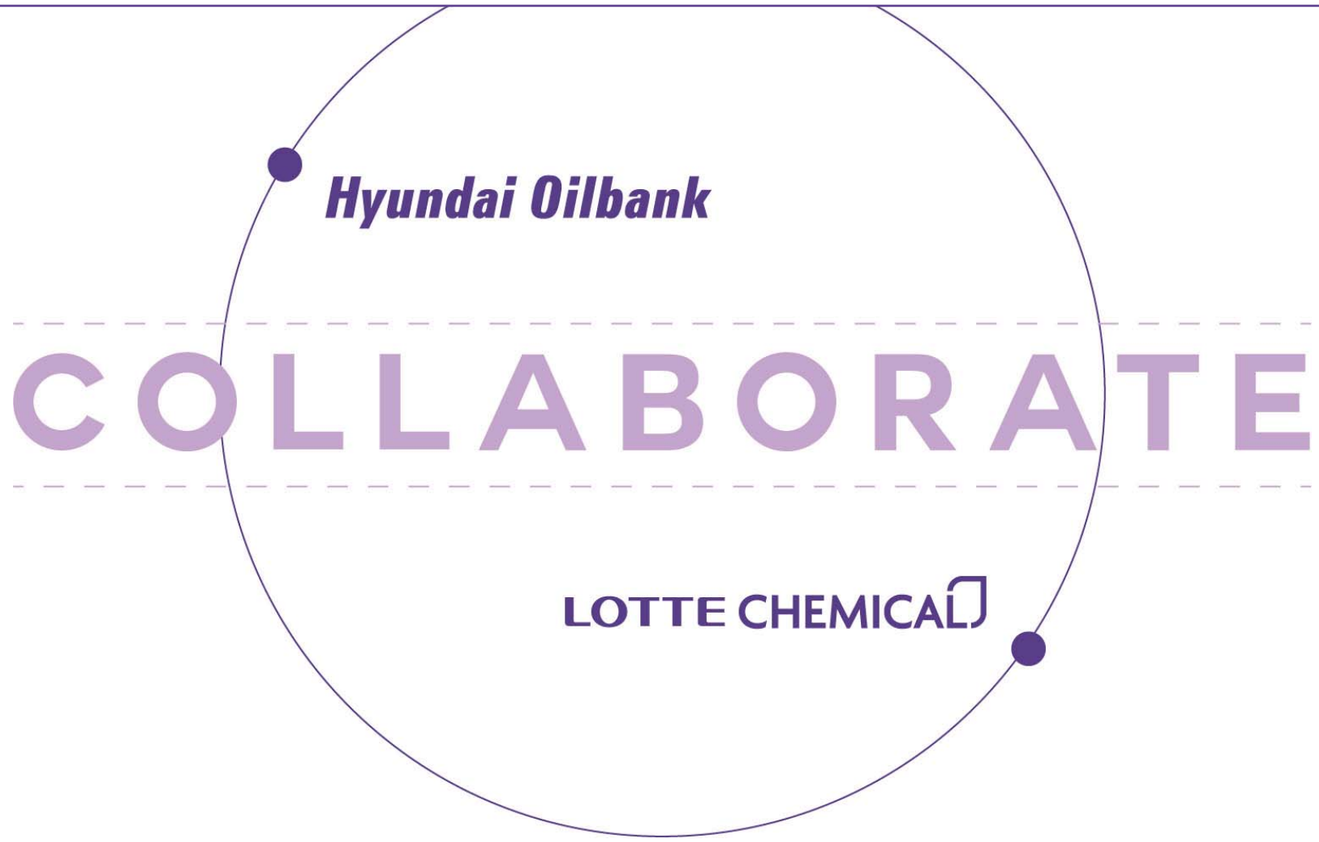
02
INSIDE

사회적 자본 ‘신뢰 네트워킹’으로 생산성 높인다

미국 뉴욕의 47번가, 이 거리는 다이아몬드 거리라 불린다. 이 거리에 자리 잡은 2천여 개의 보석상에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절반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 거리에서 다이아몬드가 거래되는 방식은 조금 독특하다.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매매하면서 복잡한 계약서가 오고 갈 법도 한데, 여기서는 간단한 ‘악수’만으로 거래를 끝낸다. 오랜 시간 이 거리에 형성된 신뢰의 네트워크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해진 다이아몬드 거리의 보석상들은 이 거리를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거래소로 만들어 냈다.

사회적 자본이란?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 교수는 위와 같은 신뢰의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이라 소개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다 다이아몬드 거리에 구축된 신뢰의 네트워크는 매우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잘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물질적 자본, 인적 자본과 함께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2007년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국부의 81%가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창출되며,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뢰로 보답한 소중한 인연
정주영 - 리바노스

현대중공업그룹도 오랜 기간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신뢰의 네크워크를 구축하며 사회적 자본을 쌓아왔다. 특히 현대중공업 정주영 창업자와 그리스 선사인 '선 엔터프라이즈(Sun Enterprises)'사의 조지 리바노스(George Livanos) 회장 간의 인연은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조선소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소중한 자산이다. 1972년 정주영 창업자는 원유운반선 설계도면과 미포만 백사장 사진만 들고 선박 수주를 위해 리바노스 회장을 찾아갔고, 그 열정을 높게 산 리바노스 회장은 2척의 원유운반선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다. 이 선박이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첫 번째 선박 '애트랜틱 배런'호다. 이를 시작으로 선 엔터프라이즈사는 지금까지 15척의 원유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리바노스 회장은 총 11번의 명명식 중 8번의 행사에 직접 참석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다. 뉴욕 다이아몬드 거리의 악수 거래와 같이, 정주영 창업자와 리바노스 회장이 만든 이 신뢰의 네트워크는 현대중공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담장 낮춘 대산공단의 이웃
현대오일뱅크 - 롯데케미칼

2013년 7월 대산공단 이웃사촌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서로의 담장을 낮추고 신사업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두 회사는 1.2조를 투자해 콘덴세이트를 정제, 혼합자일렌과 경질납사를 생산하는 합자회사 '현대케미칼'을 설립했다. 현대케미칼은 2015년부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6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합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번 낮아진 담장으로 두 회사는 서로가 필요할 경우 더욱 빠르고 쉽게 협력할 수 있게 됐다. 두 회사 간 상호 신뢰의 네트워크가 형성,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불과 5년 뒤인 2018년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두 번째 합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투자 규모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7조 원 규모. 두 회사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내 약 50만 m^2(15만 평) 부지에 HPC 설비를 건설해, 2021년부터 올레핀과 폴리올레핀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듯 한번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여 우리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주는 역할을 한다.

신뢰의 네트워킹 확장

현대중공업그룹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업분할과 함께 출범한 지주사 '현대중공업지주'를 중심으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5월 네이버의 기술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랩스'와 서비스 로봇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손을 잡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신뢰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노력이 제2의 리바노스와 같은 소중한 사회적 자본으로 쌓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글 웹진 편집실

조선산업 팩트체크 : 해양플랜트 발주

조선산업과 조선업종 주가를 둘러싼 주요 변수들 중 신조선가 및 원자재 가격에 대해 지난 호에서 팩트 체크해봤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해양플랜트산업 신규 발주 추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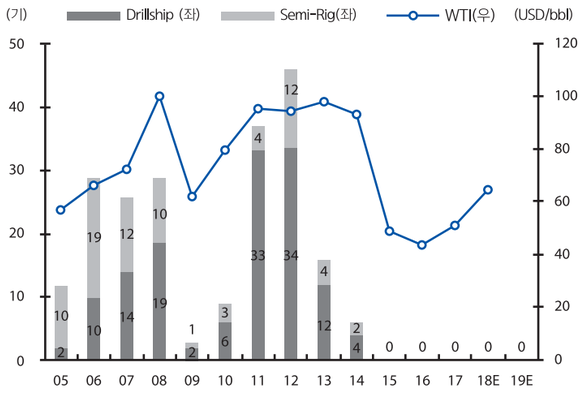
국제유가상승과 원가절감으로 해양플랜트 발주재개

국제유가상승과 주요 해양프로젝트들의 원가절감 성공으로 해양플랜트 발주가 재개되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해양플랜트 시장이 지난해부터 발주가 재개되고 있다. 2016년에는 신규 발주가 전무했으나 작년에 미국 매드독2와 모잠비크 코랄 FLNG 등 총 43억 달러의 신규 발주가 있었고, 올해도 북해 요한 캐스트버그와 요한 스베르드룹 2단계 프로젝트, 세네갈 토르츄 등 상반기에만 40억 달러의 발주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플랜트 발주 재개는 생산설비 발주에 따른 것으로 드릴십과 세미리그 등 심해 시추 설비의 신규 발주는 2015년 이후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낮은 가동률과 운영사들의 경영난 등으로 시추 설비 4년째 발주 공백

시추 설비는 내년까지도 발주가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드릴십과 세미리그의 가동률이 각각 53.3%와 44.6%로 2000

글로벌 심해 시추설비 발주 추이와 전망
자료: DataStream, 업계자료, KB증권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에 따라 용선료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000m 이상 심해용 드릴십과 세미리그의 하루 용선료는 각각 37.8만 달러와 26.9만 달러로 작년 말 대비 10.2%와 11.1%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 주요 시추 설비 운영사들의 경영난으로 조선사에 발주했던 시추설비들의 인도를 미루거나 거부하면서 중재 및 소송으로 맞서기도 하는 등 발주의 필요성은 물론 발주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한국 조선사 해양생산설비 시장점유율 0%

작년 하반기 이후 모두 4건의 중대형 생산설비 신조 프로젝트가 발주되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의 빅3 조선사는 최근 발주된 이 프로젝트들 중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중대형 생산설비 신조 프로젝트가 그동안 한국 조선소들의 독무대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최근 1년간 한국 조선사들의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점유율은 0%가 되었다. 유럽의 조선소들이 가끔 지역 내 발주물량을 수주했었던 전례가 있어 요한 캐스트버그 탑사이드나 요한 스베르드룹 2단계 프로젝트를 현지 업체가 수주한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샘코프마린이나 중국의 코스코가 해양생산설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신규 진입자의 저가입찰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

시장 참여자 증가에 따른 M/S 하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저가입찰이다. 새로 해양생산설비 시장에 진입하려는 싱가포르나 중국 조선사들의 목표는 일단 '레퍼런스'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입찰을 불사하고 있다. 실제 요한 캐스트버그 프로젝트 하부구조물을 수주한 샘코프마린의 입찰가격은 한국 빅3 대비 15~20% 정도 낮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남은 프로젝트들에서 한

국 조선사들의 선전을 기대하지만 신규 진입자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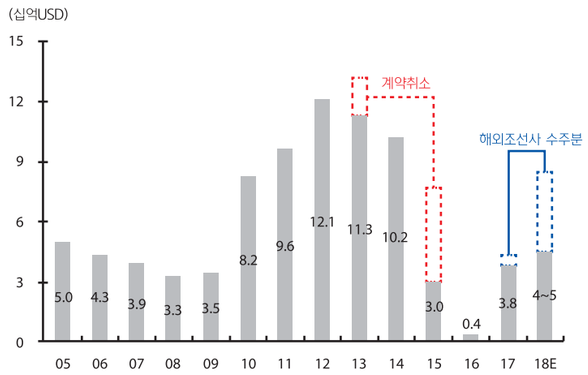
한국 업체들끼리의 경쟁 격화도 불가피

문제는 해외의 신규 진입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빅3 간의 경쟁상황도 녹록지 않다. 잘 알려진 것처럼 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나스르 프로젝트의 인도로 해양플랜트 수주잔고가 사라졌다. 작년에 2건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삼성중공업의 상황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나이지리아 현지 조선소의 일감이 에지나 프로젝트의 출항 이후 없어져 마냥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해외의 신규 진입자들 및 한국 조선사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 수주한 프로젝트들이 과연 수익성이 담보되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유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상승해도 해양플랜트 시장의 근본적 변화는 어려울 것

최근 그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상회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해양플랜트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유가와 해양플랜트 발주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현재 배럴당 65달러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업황의 근본적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럴당 80달러의 유가에서 기대되는 해양플랜트 발주량은 120억 달러 수준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는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빅3의 해양플랜트 신규수주는 최대 40~5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Big3 조선사 해양 생산설비 신규수주추이와 전망
자료: 각 사, KB증권 추정



☑ 팩트체크: 국제유가상승으로 발주가 재개된 것은 긍정적이나 경쟁 심화로 M/S 및 수익성 하락 우려

국제유가상승으로 2016년 하반기 이후 맥이 끊겼던 해양플랜트 시장이 작년부터 발주가 재개되었다. 올해 상반기 해양플랜트 발주는 40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주량에 근접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중국 등 신규 진입자들에게 물량을 뺏기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는 전무한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수주 소식이 기대되나 수주잔고가 부족한 빅3 간의 경쟁에 신규 진입자들의 도전도 거세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은 하반기에도 해양플랜트 수주가 주간에 단기 모멘텀, 그 이상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발췌 'KB증권 조선업 팩트체크' 보고서

스마트 선박으로 안전운항부터 원격 유지 보수까지 !

“애플이 전화기를 재발명하다(Apple reinvents the phone)” 지난 2007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한 문구다. 애플은 음악기기, 휴대폰, 인터넷 장치를 합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개념을 정립하였고, 오늘날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알람으로 하루를 시작해 출근길 뉴스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로만 여겨졌던 ‘스마트카’도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일반적인 연료 추진방식 차량에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주행하는 차간 거리 제어시스템이나 차선을 인식해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선 이탈 자동 복귀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차량에 이상이 생기면 정비사들이 과거처럼 부품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OBD, On Board Diagnostics)에 장비를 연결하여 차량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스마트폰, 스마트카와 같은 개념을 선박에 적용해 스마트 선박운항솔루션을 개발하였고, LNG선과 LNG연료추진선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스마트 선박의 기능과 그룹에서 개발한 통합 스마트 선박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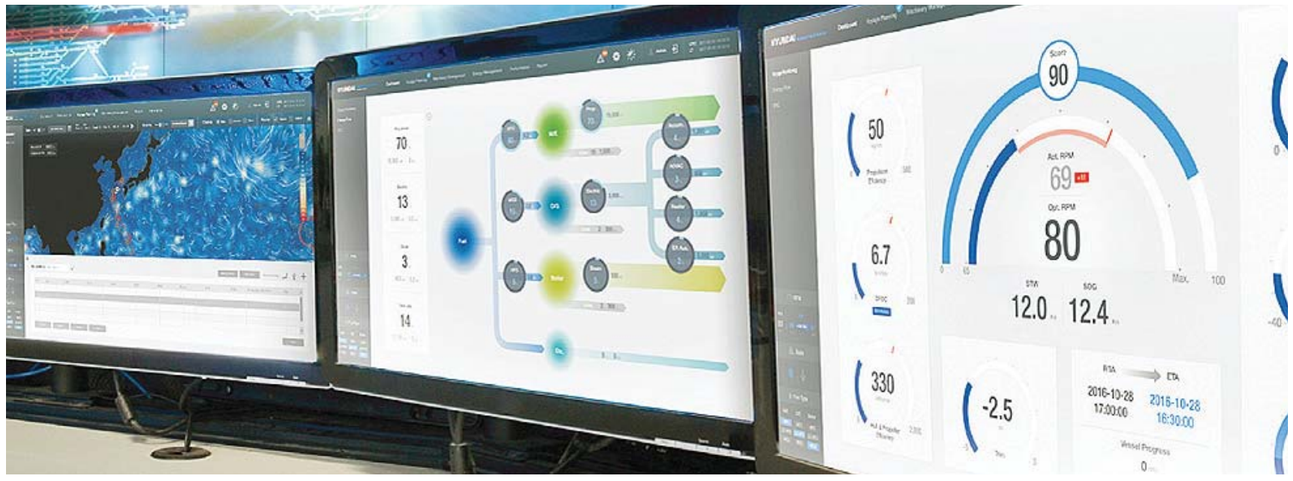
최신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통합스마트선박솔루션’

앞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카를 통해 스마트한 제품에 대해 소개했다. 업계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생각하는 스마트 선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운항 무인선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은 자율운항 무인선과는 괴리감이 크다.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 미래의 스마트 선박이 아니라, 실현된 기술로 건조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박이다.

현재 시장에서 요구되는 스마트 선박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최적의 항해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이다. 흔히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유사한 기능이지만 도로의 정체 상황 대신 기상예보를 반영하고, 최단 시간 도착보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연료 사용량을 최소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선박의 성능 분석 기능이다. 선박의 성능은 선체와 프로펠러의 상태에 대한 분석과 각종 기계류의 연료 효율로 정의할 수 있다. 선박은 운항 특성상 바닷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선체와 프로펠러에 각종 수중생물이 달라붙어 선박의 속도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또 자동차에서의 연비와 유사하게 동일한 출력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연료량을 성능 지표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선박의 운항 기록 및 장비 운용 기록을 저장하는 기능이다. 선사 입장에서 선박은 사업 영위에 가장 주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비를 통해 고장으로 인한 운항 지연이 발생되지 않기를 원한다.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와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7년 스마트 선박운항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해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주하는 선박에 적용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60여 척의 선박 계약에 '통합스마트선박솔루션(ISS, INTEGRICT Smart ship Solution)'이 탑재되었으며, 2019년 2월 첫 호선의 인도를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선박의 운항과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스마트선박솔루션은 선체와 프로펠러, 엔진 등 선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로 LNG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수입량 2,550만 톤에 비해 2017년에는 50% 증가한 3,790만 톤에 달해,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2위의 LNG 수입국가가 되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는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2020년부터 기존 3.5%에서 0.5%로 낮춰 환경 규제를 강화했다. 선사들은 선박에 탈황 장비를 추가로 장착하거나 친환경 연료인 저유황유를 써야 한다. LNG선과 LNG연료추진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LNG 물동량 증가와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로 LNG



친환경 선박에도 '스마트' 기술 탑재

선과 LNG연료추진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5월, LNG선과 LNG 연료추진선을 지원하기 위한 네 가지 기능을 선박 운항 솔루션에 추가하였다. 첫째는 LNG 탱크 모니터링 기능이다. LNG선의 화물창 또는 LNG연료추진선의 연료탱크는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 온도가 -163℃~-150℃에 이른다. LNG탱크의 적절한 온도와 압력 유지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박 내부와 육상에서 탱크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증발가스(Boil Off Gas) 모니터링과 예측 기능이다. 선박 외부의 열 유입으로 인해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기체로 변환된다. 선박의 예상 운항 경로에 따른 기상 예보를 반영해 항해 중 증발가스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여 운항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로, 증발가스 예측량을 고려한 최적 항로 추천 기능이다. 증발가스는 재액화 장치와 같은 특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양은 태우거나 공기 중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 기능은 이렇게 버려지는 증발가스를 최소로 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원하는 항구까지 도착할 수 있는 항로를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슬로싱(Sloshing) 모니터링 및 이력 관리 기능이다. 슬로싱 현상은 해상 운송 중 선박 운동으로 인하여 탱크 내부에 저장된 액체의 요동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을 말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통합스마트 선박솔루션은 슬로싱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선상 및 육상에서 확인할 뿐 아니라, 항해 기간 동안의 슬로싱 이력도 리포팅 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선박통합통신망(SAN, Ship Area Network) 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 스마트 선박을 건조했고,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는 ICT 플랫폼에 기반한 통합스마트선박솔루션(ISS)으로 진보하였다. ISS는 스마트 선박에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스마트폰에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마켓에서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처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기능의 추가 및 새로운 장비와의 연결을 할 수 있다. 선주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자가 소속된 스마트선박개발팀에서는 선박용 기자재들의 스마트화뿐 아니라 ISS와의 연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계열사 또는 사업본부에서 개별적으로 개발된 스마트 선박 기능들을 ISS로 통합하고, 수집된 선박 운항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글 김보람 I 현대중공업 선박성능연구실

거친 파도 헤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 그리는 마도로스

현대글로벌서비스 손병근 대리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하듯 선박을 운전할 때도 특별한 자격증이 요구된다. 해기사 자격증이다. 고속도로와 달리 이정표조차 없는 광활한 태평양을 거쳐 목적지로 값비싼 선박을 운항하거나, 태평양 한가운데서 선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박을 운전하는 사람을 항해사, 선박을 관리하는 사람을 기관사라고 하는데, 우리 그룹에는 유독 능력 있는 항해사 및 기관사가 많다고 한다. 그중 가장 최근에 입사했다는 직원이 있어 웹진 편집실에서 만나보았다.

주인공은 현대글로벌서비스 첫 경력 사원인 손병근 대리. 지난 2017년 현대글로벌서비스에 입사한 손 대리는 현재 보증기술부 기술서비스팀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이 제작한 선박, 엔진, 주요 보조기계 관련 유상(有償)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현대중공업 가족회사로 선박 및 발전 관련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특히 A/S 등 '선박 생애주기관리서비스'를 통해 선주사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양대학교 재학 중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학부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총 5개 과목(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해사영어)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관련과 학생이라면 조금만 노력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수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상향되며 1등 기관사, 기관장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애 첫 승선이요?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대보다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더 컸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몇 개월이 지나자 승선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바다 사나이'로서의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갈 수 없는 지역과 그곳에서의 꿀맛 같은 휴식은 고된 승선생활의 단비 같았죠."

하지만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기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외로움을 느낄 때면 직업에 대해 후회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어려웠던 순간이라... 아마 기관사 근무 시절이었을 거예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일부 기관이 손상을 입어 잘라내야 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틀 밤을 새우며 엔지니어들과 머리를 맞대 절단 없이 임시로 복구해 운하를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승선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비상상황은 신속한 판단력과 결단력이 생명이라는 걸 경험했죠.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했습니다. 승선만 하고 오면 살이 엄청 빠지는 효과가..."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리를 한 적도 있다고 했다.

"피스톤 등 주요 기관이 고장 나서 바다 한가운데 멈췄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빠르게 엔진을 정비해야 했어요. 파고가 높아 수리하면서도 진땀을 뺐죠.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순간이었고 다행히 복구시켜 기항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지난 1998년 출시된 영화 아마겟돈에 보면 드릴십에 탑승한 작업자들이 시추 중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분주하게 움직였던 장면이 있다. 그가 생전 처음으로 탑승한 드릴십은 나이지리아 유전지대에 있었다고 했다. 엔진 정기 정비작업 차 방문했는데,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바라본 드릴십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아름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 달간 드릴십에서 한국인 슈퍼바이저 엔지니어로서 타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 자리에서 힘센엔진 메이커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힘센엔진에 쌓인 고객의 신뢰 덕분에 본인의 브랜드 가치까지 함께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를 현대 입사를 결심했던 계기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현대정신 때문이었다. 국내 유일의 자체 개발 엔진인 힘센엔진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부족해 변화가 많았던 다른 기업에서는 안정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애로사항요? 주 52시간이죠."

최근 싱가포르에 입거 중인 선박에 당사에서 공동 개발한 장비가 탑재되어 정기 정비 작업 차 방문한 적이 있었다. 주 52시간제 도입 시점과 일치했던 시기라 주말에 어쩔 수 없이 휴무를 해야 했는데, 고객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해 논쟁이 벌어졌다.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운영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해외 근무 시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출장 중인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재정비해야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손병근 대리는 세계를 누비며 현대중공업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있다. 그의 항해일지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글 웹진 편집실

Knowledge | Trend | Legal | Health | Culture | Story + | Studio H

03
STORY

먼저 떠오르는 대로 써보세요.

Editor's Note | 요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관련 강좌는 물론 참고 서적들도 많습니다. 글쓰기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꼭 유명인이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어도 자신의 일상이나 삶을 기록으로 남겨 보려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물론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크고 작은 문턱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업무와 관련된 문서 작성 이외 사적인 글쓰기와는 멀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채팅방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단문에 길들어 긴 글을 이어가는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 단계에서는 걸음마가 필요한 법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시작할 때 숨쉬기부터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법과 기본 영법을 배우고 조금씩 구간을 늘리다 보면 어느새 부드럽게 물살을 가르고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글쓰기 교사였던 윌리엄 진서(1922-2015)의 도움말을 소개하려 합니다. 기자 출신 작가였던 그는 저서 『스스로의 회고록: 당신의 삶 쓰기』에서 비단 회고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글쓰기에도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들려줍니다. 2004년 출간된 책으로 원제목은 『Writing about Your Life: A journey into the past』입니다.

회고록 쓰기에 대한 오해

우리는 흥미로운 삶을 경험하면 흥미로운 회고록이 그냥 만들어질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네 삶에는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월든』의 저자)가 월든 호숫가에서 술술 글을 썼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무려 8년 동안 일곱 번이나 원고를 고쳐 썼다. 그는 독자들이 대화를 엿듣는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글쓰기 기법(평론가 마가렛 풀러는 이를 '모자이크 방식'이라 규정했다)을 사용했다. 그는 나무꾼으로서 숲속에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작가로서 숲속에 가 불멸의 고전을 창작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늘 그렇지만 가장 두려운 문제다. 오래된 편지, 엽서, 사진, 일기, 학교 졸업앨범, 축구 경기 팸플릿과 티켓, 청첩장, 베이비 샤워 초대장이 가득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자. 종잇 조각과 기억 조각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이 이제 글로 탄생되길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조각을 모아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사람들(죽음이 뭔지, 적어도 관절염이 뭔지 경험한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회고록을 쓰면 좋을지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과 내 대답은 매우 다르다. 그들과 내가 처음부터 가정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회고록이란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에서 시작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시간 순서대로 요약한 글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회고록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회고록 글쓰기는 우리가 생각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매일 하나의 에피소드를 써보자.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월요일 오전, 책상 앞에 앉아 여러분 마음속에 유난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름 캠프 첫날, 고등학교 졸업파티, 고등학교 졸업식, 선생님과의 면담, 운동 경기, 음악 독주회, 군에 입대한 날, 자녀 출산, 승리의 순간, 창피했던 기억, 사랑했던 추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이라면 어떤 사건이든 다 좋다.

그 기억을 떠올려 글로 옮겨 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묘사한다. 글이 꼭 길어야 할 필요는 없다. 1페이지여도 좋고 2페이지, 5페이지여도 상관없다. 하지만 반드지 완전한 에피소드여야 한다. 사건의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글을 다 썼으면 파일 안에 안 보이게 넣고 다른 일을 한다. 출근을 하든지, 산책을 가든지, 자녀들을 데리러 나가자.

화요일 오전,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월요일에 떠올렸던 기억과 반드시 연관된 이야기일 필요는 없다. 어제 입대 첫날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오늘 입대 둘째 날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여덟 살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 글을 써도 상관없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이라면 뭐가 되어도 좋다.

여러분이 회고록, 기사, 책 등 방대한 길이의 글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잊도록 하자. 화요일의 기억을 글로 옮겼으면 이것도 파일 안에 넣어두자. 이를 매일 반복한다.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축적될 것이다.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이야기하려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이야기를 쓰는 행위 자체가 도움이 된다. 첫째, 기억 기술, 글쓰기 기술, 정리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둘째, 무의식이 회고록 글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잠만 잔다고 무의식이 활동하는 게 아니다. 과거 기억을 들추어내고 다른 기억을 떠올릴 때 이미 여러분의 무의식은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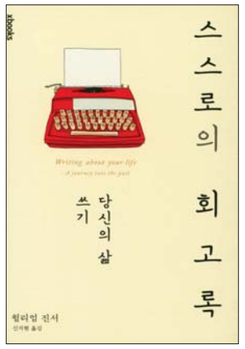
두세 달 동안 계속 반복한다. 꾸준하게 반복하자. 성급하게 '회고록 글쓰기'에 착수하는 행동(여러분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상상했던 바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다가 언제 하루 날을 잡고 파일 안에 들어있는 글을 전부 꺼내 바닥에 쭉 펼쳐놓는다. 여러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먼저, 초기에 썼던 이야기가 꽤 경직되어 있으며 자의식도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글을 쓰는 작가가 긴장을 풀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때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고로 첫 번째 달에 쓴 글이 다소 경직되어 있고, 인간미가 약하고, 허세도 좀 들어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썼다면 두 번째 달에 쓴 글에서 부드러움이 느껴질 것이다. 첫 번째 달에 쓴 글은 활용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글을 쓰느라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니다. 첫째 달에 몸을 풀어두지 않았더라면 이듬달에 그만큼 자신감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은 서서히 자기 자신의 스타일(여러분이 글에서 보이고 싶은 모습,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게 된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작가가 쓴 회고록을 읽고 싶어 할 독자는 없다. 모든 글쓰기는 책장을 넘기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작업이다. 여러분만의 스타일대로 이야기하자.

지식 큐레이터 추천도서

스스로의 회고록

윌리엄 진서 | 엑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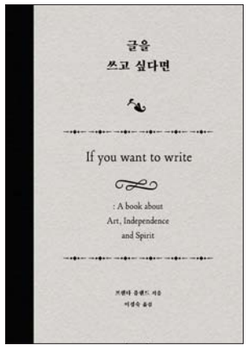


자기 역사를 쓴다는 것

다치바나 다카시 | 바다출판사

글을 쓰고 싶다면

브랜다 유랜드 | 엑스북스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 메디치미디어

글 전병근 | 지식 큐레이터

지식 큐레이터로서 전문적이고 섬세한 안목으로 주목할만한 책과 저자를 선별하여 독자들에게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

흘쩍 다가온 가을의 길목

유난히 뜨겁고 길었던 여름이 언제쯤 끝날까 싶더니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 사늘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훌쩍 다가왔다. 여름내 이어진 폭염에 에어컨 바람만 찾아다녔다면 이젠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밖을 나서봐야 할 계절이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어디든 아름답지만 시골벅적한 단풍여행 대신 고즈넉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들을 소개한다. 이곳에서라면 가족과 함께 잘 여문 주홍빛 단감처럼 풍성한 추억을 담아올 수 있을 것이다.

주홍빛 가을이
머무는 풍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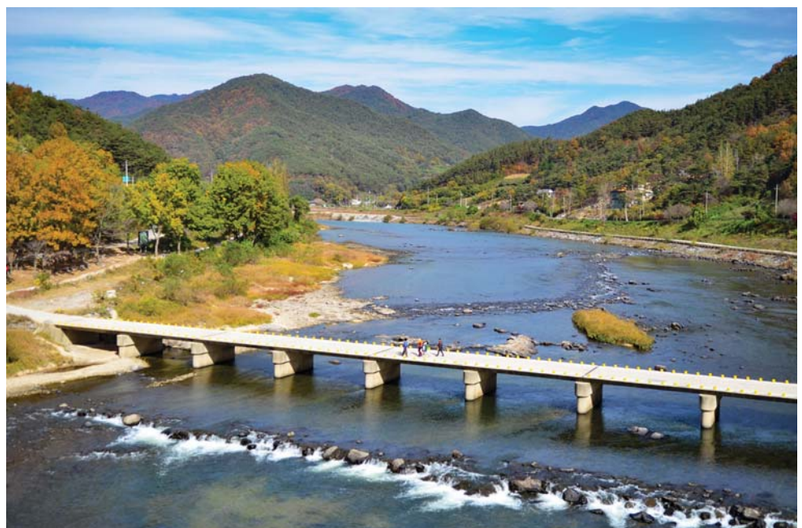
1. 섬진강과 17번 국도를 옆에 끼고 달리는 증기기관차
2. 소박하고 담백한 분위기가 매력인 옛 곡성역

2.

3. 작은 풍차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하는 기차마을 풍경
4. 가정역에서 만나는 섬진강의 은빛 물결

3.

4.



기차 타고 가을 속으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칙칙폭폭 정겨운 증기기관차를 타고 섬진강의 넉넉한 물길을 품어볼 수 있는 곡성의 섬진강기차마을은 아이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여행지다. 기차마을 입구에 자리한 옛 곡성역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도 등장한 바 있는데, 흰색 담벼락에 박공지붕을 얹은 소박하고 담백한 분위기가 매력이다. 이곳에서 출발하는 증기기관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찻길로 꼽히는 옛 전라선을 따라 가정역까지 왕복 운행한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기찻길을 따라 17번 국도와 섬진강이 나란히 달리는데, 가을이면 차창 밖으로 꽃분홍 코스모스가 강바람에 하늘거리며 보는 이의 마음마저 흔들어 놓는다. 둔중한 검은색에 70년대 비둘기호 좌석을 재현한 증기기관차는 시간을 건너뛰어 옛 기차여행의 낭만과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 기차여행 하면 자연스레 떠올리던 삶은 달걀과 사이다도 이곳에선 색다른 별미로 맛볼 수 있다. 가정역에 도착한 증기기관차는 약 30분 동안 정차하게 되는데, 이때 출렁다리를 건너면 섬진강의 은빛 물결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왕이면 아이와 함께 차가운 물살에 손도 한번 담가보고 강변을 따라 잠시 여유로운 산책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추억의 증기기관차 외에도 기차마을 곳곳에 다양한 볼 거리와 즐길 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기찻길을 따라 페달을 밟으며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레일바이크를 비롯해 섬진강의 생태를 살펴볼 수 있는 생태관, 신선한 치즈로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볼 수 있는 치즈 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과 미니동물원까지 다채로운 재미를 만나볼 수 있다. 실제 기차를 리모델링한 기차 펜션도 자리해 아이들과 특별한 하룻밤을 즐겨볼 수 있다.

1.

2.

외갓집처럼 푸근한 가을,

아산 외암민속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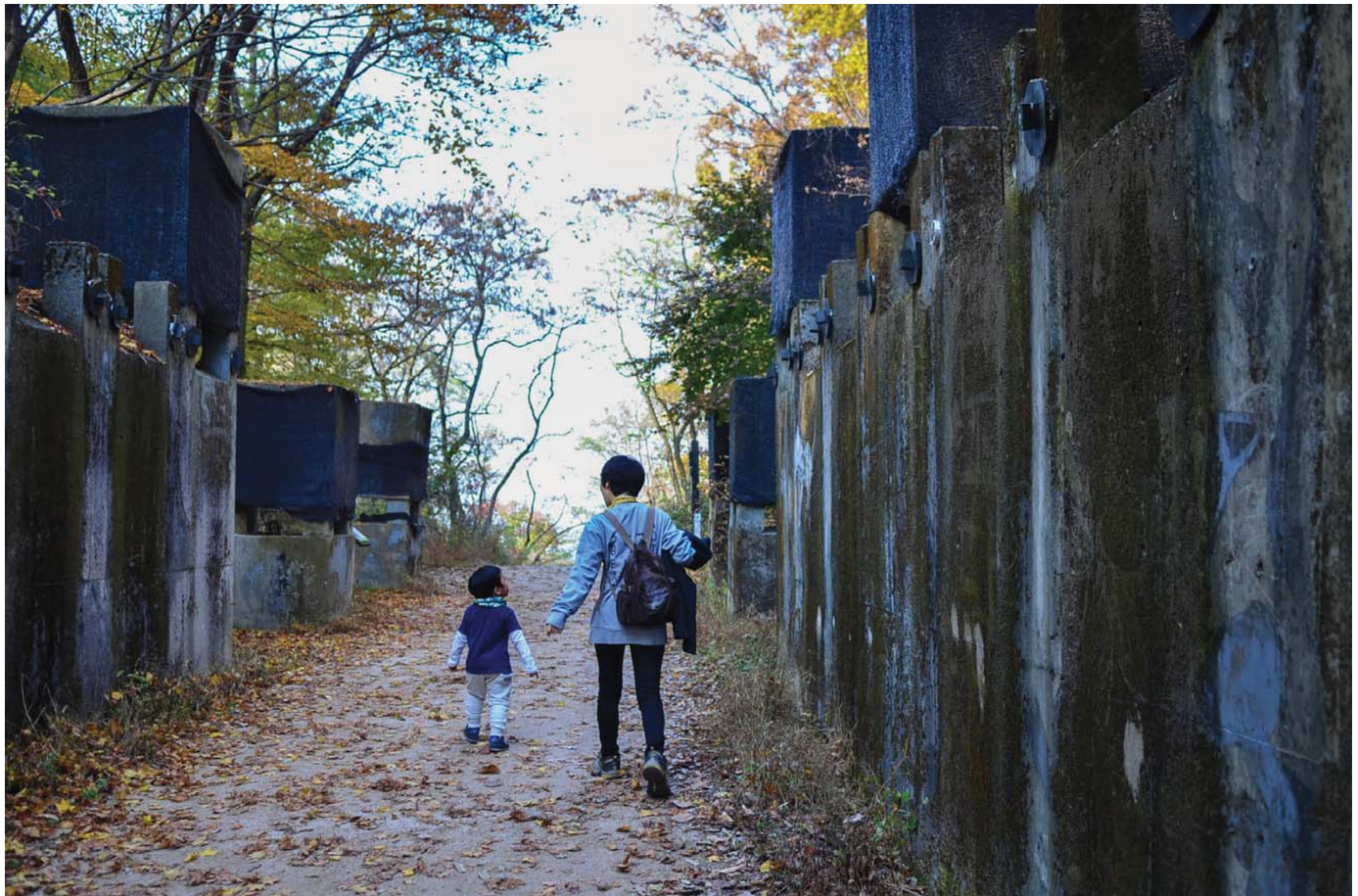
화려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는 없어도 그저 머무는 것만으로도 눈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행지가 있다. 아산에 자리한 외암민속마을이 그런 곳 중 하나인데, 골목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린 감이 마치 어린 시절 외갓집에 놀러 온 것처럼 친근하고 정겨운 풍경으로 여행자들을 맞아준다. 예안 이씨의 집성촌이자 수수한 조선 시대 생활상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마을에는 오랜 시간을 품은 고택과 초가,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담, 뒷산에서 흘러드는 시냇물이 지나는 물길과 물레방아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집주인의 관직명이나 출신지명을 따서 참판댁, 감찰댁, 영암댁 등의 택호를 정해둔 것도 눈길을 끄는데 이들 고택에서는 숙박체험도 가능하다. 마을 주민들과 고추장을 담거나 엿을 만들며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특히 9월에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사물놀이와 현악 4중주, 인형극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외암 이간 선생의 일대기를 테마로 한 짚풀문화제도 열려 아름다운 황금 들녘을 배경으로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3.

1. 오랜 시간을 품은 외암마을 전경
2. 대청에 놓인 다듬잇돌을 체험 중인 아이
3. 도시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나무 그네

1.

1. 웅장한 산자락을 병풍 삼은 오봉산 석굴암
2. 아이들과 걸기에도 좋은 완만한 탐방로



2.

알록달록 가을의 절정을 걷다,
북한산 우이령길

그래도 가을인데 단풍여행을 건너뛰기 아쉽다는 이들에겐 도심 한편에 호젓하게 자리한 우이령길을 추천한다. 도봉산과 북한산의 경계에 자리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은 군사적인 이유로 무려 40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지역이라 자연 그대로의 싱싱한 생명력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특히 가을이면 알록달록 단풍이 화려하게 물드는데,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하루 탐방객을 천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교적 여유롭게 단풍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우이동과 교현리 어느 방향에서 출발해도 좋지만, 우이동에서 넘어가는 길이 부담 없는 내리막이라 아이와 함께 걷기 좋다. 우이령길의 총 길이는 약 7km로 아이와 함께라면 넉넉잡아 4시간 정도 소요된다. 편도 코스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우이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1시간 남짓이면 오봉산 석굴암 표지판을 만날 수 있다. 살짝 샛길로 빠져야 하는 곳이지만 웅장한 산자락을 병풍 삼은 사찰 풍경이 아름다워 잠시 걸음을 돌려도 좋다. 이름 그대로 커다란 바위 아래 석굴을 파고 나한을 모신 이곳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도봉산 꼭대기 다섯 개의 암봉을 일컫는 오봉은 우이령길 중턱부터 내내 걷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봉 전망대에 이르면 마치 하늘로 날아오를 듯 우뚝 솟은 봉우리가 더욱 선명해지는데, 옹기종기 모여 앉은 모습 때문에 오형제봉으로도 불린다. 전망대 주변에는 쉬어갈 만한 공간이 널찍한데 미리 도시락을 준비해 가족들과 색다른 가을 소풍을 즐겨 봐도 좋겠다.

글 권다현 | 여행 작가

매력적인 여행지를 독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여행만큼이나 즐기는 베스트셀러 작가

안전한 외국자산투자의 시작, 이것만은 꼭!

글 최재원 I 법무법인 신우
그림 정민영 I 일러스트레이터

외국 주식 투자, 주의하세요

김 부장은 미국에 사는 동생이 10년 전 사업 자금 부족으로 힘들어할 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동생은 자신의 회사 주식을 형에게 이전함으로써 형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동생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잊고 있었던 주식의 가격도 상당히 오르게 되었다. 김 부장은 현지에서 주식을 팔고 그 이익을 한국으로 들여오고자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주식 취득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던 것과 같이 외국 주식을 받은 것뿐이라며 항변했지만, 김 부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과태료 3천만 원을 낸 후에야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외국환관리법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외환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TV에서도 해외주식투자 광고를 하고 은행과 증권사는 해외주식펀드를 팔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환거래도 국내 일반 자금거래 같을 것이라는 외국환거래 당사자들의 막연한 믿음과 은행 직원들의 상대적으로 복잡한 외환거래 절차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김 부장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 낸다. 그것도 꽤 많이. 금감원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객을 대리하여 외환거래 신고를 해 준 이후, 고객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여(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처음 신고 대리를 했던 변호사가 불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엄격한 규제의 대상인 외환거래

1962년 제정된 외환관리법 대신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새로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외환거래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전문가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외환거래 신고·허가이다.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 대상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우선 거래부터 하기가 쉬운데, 이때는 이미 법을 위반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 선의의 위반이라 할지라도 외환거래법 위반자는 거래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버리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은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해외 자산 취득이나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기관들과 달리 개인들은 해외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고 일회성 투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만큼 외환거래법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각자 소박한 꿈과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해외투자가 고민과 후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외투자절차를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적법한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로 알아보는 해외 투자

#1

대학 동기가 설립한 실리콘 밸리 벤처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Q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가 실리콘 밸리에서 바이오 벤처를 설립했다고 한다. 해외 특허로 시장 반응도 좋지만, 아직 2~3년은 더 투자해야 할 것 같다는 친구의 회사. 박 차장은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 친구 회사에 투자 하기로 결심한다. 이 경우 친구에게 돈을 보내도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A 일단 해당 주식을 국내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외환거래법상 해당 주식을 국내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 후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해야 한다. 증권취득신고서, 사유서, 본인과 거래 상대방의 실체확인 서류, 증권거래계약서, 재원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거래대금이 연간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이러한 신고 없이 시중은행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 후 송금이 가능하다.

#2

노후를 대비한 동남아시아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Q 베트남 파견에서 복귀하면서 가족들은 현지에 남겨두고 기러기 아빠가 된 문 과장. 매달 외화를 보내던 문 과장은 가족이 머무는 베트남의 한 아파트를 아예 매입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이 경우 문 과장이 국내 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할까? 해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A 해외 부동산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외환거래법은 최초 외환 송금 시에 신고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외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투자목적이나 거주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중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참고로 베트남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임차권 등)만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나누어져 있다.

#3

해외 거주자에게 빌려준 돈으로 현지 자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Q 김 부장은 해외 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현금이 아닌 미국 회사 주식으로 돌려받았다. 국내로 송금하기 아쉬워 해외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니, 마침 투자하기 좋은 집이 뉴욕에 매물로 나왔다. 주식을 처분하면서 미국 현지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아 집을 한 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A 일단 김 부장은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돌려받았을 때, 채무와 주식의 '금전대차'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해외 주식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 김 부장이 현지 대출을 하는 경우, 해외부동산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부동산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해외부동산취득신고만 하면 된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치질

글 정성우 | 서울아산병원 대장항문외과 임상강사

"회식한 다음 날 아침에는 꼭 항문에 무언가 덩어리 같은 게 튀어나와요." "요즘 스트레스로 변비가 생겼는데 그 뒤로 변을 볼 때 마다 찢어지게 아프고 피가 나요." "대변 보고 깨끗이 뒤처리를 해도 자꾸 속옷에 묻어나요." 항문의 불편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러한 증상들을 일반적으로 '치질'이라고 표현한다. 정확하게 치질이란 치핵, 치루, 치열 등의 항문 질환을 통칭한다. 전 국민 4명 중 3명이 경험하고 있으며, 연간 수술 시행 건수가 약 20만 건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치질의 초기증상과 주요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초기 증상

출혈

출혈이 없으면 치질이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다. 배변 후 휴지에 피가 묻어 나오며, 심한 경우 피가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

통증

통증이 없어 방치할 경우 상태에 따라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항문 주위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가려움

항문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항문 질환으로 인해 흘러나온 점액질 등으로 항문 주위가 가려운 증세. 평소 술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배변 후엔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게 좋다.

부종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항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핏덩이가 생기거나 노폐물이 쌓여 부종이 생길 수 있다. 방석을 사용하고, 좌욕을 통해 혈액순환이 잘되도록 도와야 한다.

탈항

혈액순환 장애로 부풀어 오른 치핵 조직이 항문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이 탈항 증상이다. 치질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배변 시에만 탈항 될 수도, 배변 후에도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

빈혈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철분 결핍으로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오랜 기간 방치하면 피로, 식욕 저하, 소화불량, 현기증,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유형

치핵

통상 치질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치핵. 항문관엔 배변으로 인한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일종의 쿠션이 존재한다. 이 쿠션이 망가져 출혈, 통증, 덩어리 등의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치핵이라고 부른다.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 장시간 변기에 앉아있는 습관, 변비, 음주 등이 치핵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며, 여성들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치핵 덩어리가 항문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나와 있거나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가벼운 증상일 경우 좌욕과 투약, 식이요법 등으로 좋아질 수 있다. 변비나 설사가 생기지 않도록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5~15분 정도 온수로 좌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열

치열은 항문 주위가 찢어지는 병으로 주로 항문 뒤쪽(6시 방향)에 발생한다. 단순히 찢어지기만 하고 증상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급성 치열, 그 이상 지속되며 피부조직 변성이 동반된 경우는 만성 치열로 진단한다. 변비가 가장 큰 원인이 되며, 항문관의 압력이 높고 항문이 좁은 경우 빈번하게 생길 수 있다. 배변 시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급성 치열은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완화제, 진통제 등의 약물치료와 온수 좌욕 등으로 대부분 2주 이내에 좋아질 수 있다. 만성 치열은 항문관 압력을 낮추기 위해 항문 내 괄약근 절개술을 시행한다. 수술 후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지만 10% 미만에서는 재발할 수 있다.

치루

항문샘에 염증이 생겨 고름집이 발생하는 것을 항문주위 농양이라 하는데, 이 농양이 배출된 후 항문선과 피부 사이에 샛길이 생기는 것을 치루(항문 누공)라고 한다. 피부 쪽 누공으로 진물이나 고름 등의 분비물이 묻어 나오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염증이 심해지면 통증, 부종, 열감이 생길 수 있다. 누공으로 고름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도 있으나 불분명한 경우 치루 조영술, 항문초음파, MRI 등의 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치루 치료 목표는 염증이 발생한 항문샘 조직과 치루관을 적절히 제거하면서 항문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에 있다. 심하지 않은 경우 항생제 복용 및 온수 좌욕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신선이 되는 지름길, 버섯 요리

글 윤덕노 | 음식 평론가
그림 청운 | 일러스트레이터

지독하게 더웠던 지난여름, 별 탈 없이 무더위를 견뎌 준 내 몸에 상이라도 주고 싶다. 상품은 버섯이 좋겠다. 계절도 버섯철인 가을로 접어든 데다 옛날에는 신들이 먹는 식품, 먹으면 신선이 되는 음식이었다고 한다. 선선한 가을, 버섯으로 신선 된 기분을 느껴 보자는 거다.

버섯으로 웬 호들갑인가 싶겠지만, 알고 보면 버섯은 보통 식품이 아니다. 옛날에 버섯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었다. 몸에 특별히 좋은 귀한 식품으로 여겨져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만이 버섯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버섯은 신이 먹는 음식이니 신의 후손인 파라오는 먹어도 좋지만, 인간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동양도 마찬가지여서 옛날에는 버섯을 발견하면 일단 왕에게 바쳤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성덕왕 때 지금의 창원, 상주, 공주에서 상서로운 버섯을 발견해 나라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고려사에는 태조 원년에 싱싱한 영지가 발견돼 나라에 바치니 특별히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버섯을 상서로운 조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영지야 약초니까 귀하게 여긴 것 아닌가 싶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지금은 영지가 특정 버섯 이름이지만 옛날에는 영지버섯을 포함한 모든 버섯의 또 다른 별칭으로 신령 영(靈), 버섯 지(芝)자를 썼다. 버섯 자체를 신령스러운 식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버섯에도 등급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역시 아니다. 모든 버섯이 다 좋은데 다만 나라와 시대에 따라 선호도가 달랐을 뿐이다. 우리나 일본에서 최고로 꼽는 것은 송이버섯이다. 동의보감에는 깊은 산속, 늙은 소나무의 기운을 받아 자라는 송이버섯이 버섯 중에서는 으뜸이라고 강조했는데 심지어 송이를 하늘의 음식이라고 생각했다.

고려의 대학자 이규보는 신선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송이버섯을 먹는 것이라고 극찬했다. 향긋한 송이가 마치 신선이 먹는 음식과 비슷하다는 것인데 송이버섯은 바람 소리와 이슬만 먹고 자라는 고고한 식물로 송이를 먹으면 온몸의 기운이 평온해진다고 했으니 송이버섯을 맛보며 신선이 된 기분을 느꼈던 모양이다.

중국은 또 다르다. 송이버섯은 별로 쳐주지 않는다. 대신 최고로 꼽는 것이 표고버섯이다. 중국 사람들은 표고버섯 요리를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장수 요리(長壽菜)라고 한다. 때문에 여러 중국 황제가 표고버섯을 즐겼다. 명 태조 주원장이 기력이 쇠했을 때 표고버섯 볶음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고 하고 청나라 건륭황제 또한 표고버섯과 죽순, 오리고기를 볶은 음식을 좋아했으니 표고버섯은 황실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였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인이 좋아하는 버섯은 동양과는 달라서 고대 로마인들은 우리나라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달걀버섯을 최고로 꼽았다. 심지어 1세기 때 네로황제는 달걀버섯을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우겼는데 전임 황제이자 양아버지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달걀버섯을 먹고 신이 됐다고 주장했다. 사실은 달걀버섯 좋아한 황제의 식습관을 이용해 독버섯으로 독살해 놓고 한 소리지만 어쨌든 역대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달걀버섯을 좋아했는지 이 버섯 별명이 무려 카이사르 머쉬룸(Caesar Mushroom), 황제 버섯이다.

현대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트뤼플, 바로 송로버섯이다. 거위 간 푸아그라, 철갑상어 알 캐비아와 함께 유럽 3대 진미로 꼽는데 이성을 유혹하는 물질인 페로몬 향이 난다고 해서 예전부터 사랑의 묘약으로 여겨 커플들을 위한 요리에 자주 쓰였다. 비싼 송로버섯은 버섯을 통째로 먹는 것이 아니니 시중에서 파는 트뤼플 소금이나 트뤼플 오일로 향을 느끼면서 유럽 미식가의 기분을 공감해 보는 것도 좋겠다.

평소 무심코 먹던 버섯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 사람들은 하나같이 버섯을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으니 올가을 버섯을 먹으며 신선이 된 기분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Editor's Note | Story +는 사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모아 함께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사우의 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잡학사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거진 H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사우들 인생의 소소하지만 특별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영향을 미친 [ ]는 무엇인가요? 사람, 사건, 사물,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목과 사연(500자 내외/A4 반 장 분량)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우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사우의 글

내 인생의 맥주

샐러리맨이라면 누구나 퇴근 후의 소소한 티타임,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즐거움을 공감할 것이다. 잠깐의 여유로 하루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맛이야말로 어른이 되어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내 인생 최고의 맥주를 꼽으라면 체코여행 중 마셨던 흑맥주 한 잔을 이야기하고 싶다. 체코는 전 세계에서 맥주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이기에 맥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곳에서는 누구든 맥주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을 수 없다. 석양이 뉘엿뉘엿 질 때쯤 까를교를 배경으로 야외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정말이지 어느 영화에 한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운치와 맛이 대단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체코 흑맥주 코젤다크를 생맥주로 마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 맥주 한 잔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은은한 커피향과 달콤한 계핏가루의 조화에 마지막에 느껴지는 쌉사래한 여운을 더하자 나도 모르게 술잔이 비워졌다.

성인이 된 후 처음 맥주를 마셨을 때의 느낌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작정 떠났던 체코여행에서의 맥주 한 잔이 무료했던 내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던 같다. 난 그때의 기억을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이다.

글 유민오 | 현대삼호중공업 인사팀

PREMIUM QUALITY

유용한 정보

IPA, 둔켈, 바이젠… 취향 저격 맥주를 찾아서

Always FRESH BEER

수입 맥주가 대중화되고 수제 맥주가 유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에 어떤 맥주를 마셔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름도 어려운 메뉴판 속에서 내 취향의 맥주를 찾아내기 위해 기본적인 맥주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글 웹진 편집실

에일은 18~25도의 온도에서 발효시킨 맥주이다. 라거보다 높은 온도에서 발효시키기 때문에 색과 맛이 진하고 탄산이 적으며 과일 향이나 꽃향기와 같은 풍부한 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에일 중에서도 페일 에일(Pale Ale), 밀맥주(Wheat Beer), 포터(Porter)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페일 에일

다양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 수제 맥주 마니아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로 불린다. 페일 에일의 한 종류인 인디아 페일 에일(India pale ale, IPA)은 특히 더욱 그렇다. IPA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던 19세기 인도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을 위해 장기간의 여행길에도 맥주가 상하지 않도록 홉(Hop)을 많이 넣어 만든 것이 인디아 페일 에일의 기원이다. 덩굴식물 일종인 홉은 미생물 번식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맥주에 씁쓸한 맛과 다양한 향을 더해준다.

밀맥주

보리를 싹 틔운 맥아를 주원료로 하는 일반 맥주와 달리 밀 맥아와 보리 맥아를 함께 사용해 만든다. 부드럽고 향긋한 맛을 내고 보통 맥주보다 밝은색을 띠므로 '하얀 맥주' '화이트 비어'라고도 한다. 독일식 밀맥주는 독일의 맥주 순수령의 영향으로 비교적 최소한의 재료를 첨가해 양조하지만 벨기에식 밀맥주은 허브와 향신료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들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다. 맥주 레이블에 바이젠(Weizen), 바이스비어(Weissbier)라고 적혀있다면 독일식, 벨지안 화이트(Belgian white), 블랑슈(Blanche), 블랑(Blanc)이라고 적혀있다면 벨기에식 밀맥주이다.

포터

18세기 영국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흑맥주로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사랑받아 짐꾼(Porter)이라는 이름이 붙은 맥주다. 맥아 또는 보리를 검게 볶아서 제조하기 때문에 색이 어두우며 진하고 탄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칭 '흑맥주'라고 불리는 부류에 속한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흑맥주를 지칭하는 말로 알려진 스타우트(Stout)도 포터의 일종으로 가장 알코올 도수가 센 포터를 강하다는 뜻의 영어단어 Stout를 붙여 스타우트 포터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라거는 에일보다 낮은 9~15도의 저온에서 발효시킨 맥주로,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이다. 19세기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나 현재는 가장 보편적인 맥주이다. 황금빛을 띠며 에일처럼 과일 향이나 깊은 맛이 없는 대신 부산물이 적어 상쾌한 청량감과 깔끔한 맛이 난다. 필스너(Pilsner), 페일 라거(Pale Lager), 둔켈(Dunkel) 등이 라거에 속한다.

필스너

1842년 체코 필젠(Pilsen) 지역에서 처음 생산된 맥주로 황금빛을 띄고 홉의 씁쓸한 맛이 특징이다. 어둡고 진한 색의 맥주가 주류였던 맥주 시장에 등장한 필스너는 체코를 넘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19세기 후반 냉장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럽 각지의 양조장들이 필스너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필스너는 필젠 스타일의 맥주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페일 라거

연한 황금색과 적당한 쌉쌀함, 청량감을 갖는 맥주이다. 필스너에서 홉의 쓴 맛과 향을 감소시키고 맥아의 단맛을 줄여 대중의 기호에 맞게 깔끔하고 담백하게 변형된 맥주이다. 마셔도 마셔도 질리지 않는 부드러움과 기분 좋은 목 넘김, 청량함 덕분에 페일 라거는 현재 전 세계 맥주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마트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맥주도 페일 라거 종류가 가장 많다.

둔켈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는 흑맥주를 지칭한다. 검게 볶은 보리를 사용해 짙은 검은색 때문에 매우 쓰고 진한 맥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에일인 스타우트나 포터와 달리 쓴맛이 적은 편이고 보리맥아의 질감이 강조되어 있다.

램빅은 벨기에 남서쪽 지역에서 대기에 떠다니는 야생의 효모와 박테리아를 이용해 자연 발효한 맥주다. 6개월에서 3년간의 장시간 발효로 생기는 특유의 치즈 같은 쿰쿰한 향이 특징이다. 라거나 에일처럼 맥주 발효용으로 정제된 효모가 아닌 대기에 부유하는 미생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조장에서 만들더라도 만들 때마다 다른 맛이 난다. 괴즈(Gueuze), 크릭(Kriek), 스트레이트 램빅(Straight Lambic)의 세 종류로 크게 나뉜다.

괴즈

괴즈는 숙성 기간이 다른 여러 램빅 맥주를 섞어 병에 담은 후 병 속에서 다시 발효를 시켜서 만든다. 램빅은 일반적으로 탄산이 거의 없지만 괴즈는 병 속 발효를 통해 탄산이 생겨 '브뤼셀의 샴페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쿰쿰한 풍미와 포도, 사과 주스의 새콤함 등을 느낄 수 있다.

크릭

크릭은 램빅 중 가장 마시기 쉬운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램빅에 체리를 넣어 발효시킨 맥주로 '시큼한 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체리향이 배어있는 시큼한 주스 같은 맛아 난다. 일부는 과일만 넣어서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들어간 과일 주스나 설탕 자체를 넣어 단맛을 더 강하게 내기도 한다.

스트레이트 램빅

블렌딩이나 과일을 넣어 가공하지 않은 램빅 맥주는 스트레이트 램빅이라고 부른다. 아무것도 타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램빅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스트레이트 램빅은 짜릿한 신맛을 보이고, 그보다 더 오래 묵은 람빅은 고소함, 스모키, 텁텁함 등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잡학사전

고대인들도 사랑한 곡물 음료, 맥주

글 웹진 편집실

#막걸리와 비슷했던 고대의 맥주

인류는 수렵 생활을 지나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맥주를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1953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비판에는 '기원전 42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발효를 이용해 빵을 구웠으며 그 빵을 가지고 대맥의 맥아를 당화시켜 물과 함께 섞어서 음료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당시 맥주는 지금과 다른 걸쭉한 유동식 형태의 술로, 우리의 막걸리와 비슷했다고 한다. 실제로 영국의 한 맥주 업체는 고대 이집트 왕비의 성전에서 발견된 맥주 제조법으로 고대 이집트 맥주를 복원해 한정판매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마시는 맥주에 비해 걸쭉하고 시큼한 맛이 났다고 한다.

#맥주순수령, 맥주 맛을 위한 법이 아니다

맥주순수령은 맥주를 만들 때 보리 맥아와 정제수, 홉만 넣도록 강제한 법으로 1516년 독일 남부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름 4세가 공포했다. 흔히 맥주의 품질 유지를 위한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당시 독일에서는 보리와 밀을 섞어 만든 밀맥주가 유행했는데, 밀맥주의 생산이 늘어나다보니 빵의 원료로 쓸 밀이 부족해졌다. 밀을 확보하기 위한 제빵업자들과 양조업자들의 갈등이 깊어지자 교회와 귀족들까지 나서면서 사회문제로 커지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법 덕분에 독일 양조장들은 지금까지도 맥주순수령을 지키면서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맥주는 차가워야 맛있다?

맥주는 차갑게 마셔야 더 맛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맥주의 종류마다 적정 온도가 있기 때문이다. 페일라거나 필스너는 6~9도, 바이젠은 10~12도, 페일 에일이나 IPA, 포터, 스타우트 등은 11~13도가 적정 온도다. 전문가들은 맥주를 너무 차갑게 마시면 맥주가 가진 고유의 풍미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평소에 정확한 온도는 맞춰서 맥주는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에일은 라거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즐길 때 풍부한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엔젤링은 좋은 맥주의 증거가 아니다

맥주를 마신 뒤 컵에 원형으로 묻은 거품의 흔적을 엔젤링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엔젤링은 맥주의 본고장은 유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굳이 비슷한 표현을 찾는다면 레이싱(Racing)이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싱이 있어야만 품질이 좋은 맥주는 아니다. 맥주는 종류에 따라 주조 방법이 다르고 함유한 탄산의 양도 다르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사실 엔젤링은 일본의 주류회사가 마케팅을 위해 만든 표현이다. 지금도 다수의 일본의 소비자들은 엔젤링을 좋은 맥주의 증거로 인식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

#수도원에서도 맥주를 만든다

트라피스트 수도회 산하의 양조장에서 만들어내는 맥주를 트라피스트 에일이라고 부른다. 신성한 종교단체에서 술을 만든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부터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술은 오염된 물로 인한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마시는 일종의 식수였기 때문이다. 트라피스트 수도원들은 1997년 국제 트라피스트 협회를 만들어 트라피스트 맥주의 인증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협회의 인증을 받은 맥주에만 트라피스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인된 트라피스트 맥주 양조장은 총 12곳이며 벨기에에 6곳, 네덜란드에 2곳, 오스트리아와 미국, 이탈리아, 영국에 각각 한 곳이 있다.

#왜 수입 맥주가 더 쌀까?

우리나라의 주세 방식은 과세 대상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를 따르고 있다.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도 비싸지는 방식이다. 맥주에는 국산, 수입 모두 동일하게 72%의 세금과 이 주세의 30%만큼의 교육세가 붙는다. 하지만 세금부과의 표준이 되는 가격의 책정기준이 다르다. 국산 맥주는 원가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출고가에 세금을 얹는 방식이지만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한다. 수입업체가 많은 물량을 들여와 개당 수입원가를 낮출 수 있다면 세금도 낮출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못 마시는 세계 1위 맥주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세계 판매량 1위의 맥주는 중국의 국민 맥주로 불리는 '설화(雪花)'이다. 2017년 세계 시장 점유율 5.5%, 중국 점유율 30%대를 기록하며 10년째 세계 맥주 시장 판매량 1위를 지키고 있다. 설화는 1994년 영국 사브밀러와 중국 화룬창업이 합작해 만든 이후 싸고 맛있는 맥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맥주를 국내에서 맛보기는 힘들 예정이다. 설화와 유사한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회사가 유사품 난립을 막기 위해 설화의 상표권까지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름으로 수입이 추진된 적도 있었지만, 중국 측이 설화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 수입이 무산됐다.

#캔맥주는 왜 병맥주보다 비쌀까?

같은 브랜드의 같은 용량 맥주라도 담긴 용기가 캔이냐 병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보통 병맥주보다 캔맥주가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같은 양에도 불구하고 병맥주 가격이 캔맥주보다 저렴한 이유는 재활용을 통한 원가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빈 맥주병은 수거해 세척한 뒤 수차례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병맥주값이 싸다. 하지만 수입 맥주는 국산과 반대로 캔맥주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병의 형태가 다 달라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 쉽지 않고, 캔에 비해 무거워 운송비도 더 들기 때문이다.

Editor's Note | Studio H는 사우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가족, 친구 혹은 임직원과의 소중한 인연이 담긴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림과 액자를 선물해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이달의 주인공 - 현대미포조선 유정상 과장

지친 걸음을 달래주는 나의 행복, 나의 사랑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항상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그림을 그려놓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해주는 딸의 모습이다. 딸이 그려놓은 그림과 딸의 환한 얼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자 에너지이다.

그림 봉현 | 일러스트레이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거진 H는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룹 웹진입니다. 읽고 난 소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점, 소개하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주세요. 보내실 때 소속과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magazine@hhi.co.kr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www.hyundai-holdings.co.kr

Copyright©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All Rights Reserved